

# 여름철 재난대응 강화 힘 모은다

### 전북도, 도상훈련·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협력체계 구축·선제적 대응·피해 최소화 총력

전북도가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육군 제35보병사단, 전주기상지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 도내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최만립 재난대응정책관이 참석,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보탤 것이며,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 회의를 참관했다.

이날 저수지 붕괴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익산시 왕궁저수지 붕괴를 가정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른 기관별 대처상황 등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상황은 이날 익산시에 호우경보, 완주군 호우주의보 등 호우 특보를 발표로 비상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단계를 상향하는 등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가상의 상황을 부여해 도 합업부서(13개), 유관기관(10개) 별로 단



전북도가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계별 준비상황 및 대처상황 등을 발표했다.

이어, 합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유관 기관 간담회도 개최했다.

먼저, 전북도는 올해 여름철 풍수해(호우, 태풍) 대책 기간을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5개월) 설정, 24시간 상형근무와 5단계 상형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3단계 근무 기준

을 강화하는 등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수정했다.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은 6월 말까지 91% 완공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취약지역을 지난해 대비 40% 추가 발굴하며,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배수펌프장(118개) 및 우수저류시설(15개)의 가동상태를 전수 점검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예방

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풍수해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준비상태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와 견의사항을 제시하며, 개선방안을 토론했다는 등 풍수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영산강홍수통제소는 도내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위 제한수위 하향(▲2.5m) 및 수문상류 사전예고제(3시간 전-1~2일 전)를 개선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및 정밀조사를 실시, 재해위험요인을 유기전 사전 해소할 방침이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오늘 모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여름철 재난대응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며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교류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 복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선거에서 정보 제공자의 역할 중요”

### 전북기자협회 ‘대선과 지선,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신기현 전북대 교수, 정보 제공자 역할과 의제 발굴 강조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전국시도기자협회 언론인 초청 세미나’가 지난 1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남형진 전북기자협회장 등 전국 시도기자협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서 세상 전체가 뭔가 새로운 어딘가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내년 선거에서는 변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데,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 변화를 추구하며 근본은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좋은 기사와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비야 호로 정치의 계절이 오면 언론이 정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기자협회도 매주 화요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

역시 이런 선거 시기를 통해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앞두고 지방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신 교수는 “언론이 선거에서 중요한 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라며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선거 공보를 물이라도 제대로 읽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또 관련 정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제공할 때 신문지면, 방송 시간 제한으로 후보자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준거를 들어 최근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도가 나온 후보자들을 고르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한 “언론이 공정성을 가진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정치 개혁, 재난 지원금 등 정치 교육의 의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 전북도, 5년 연속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전국 최다 배출

### 전국 286명 중 61명 선정... 육성자금 최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교육·컨설팅 지원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

도는 지난 2017년 59명, 2018년 54명, 2019년 63명, 2020년 62명에 이어, 올해 61명이 선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로써,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

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농도(農道) 전북으로 증명됐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 기본역량과 경영 능력에 대해 시·군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매년 280명 정도를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 신축(개보수) 등을 위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별도의 농업 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5년 연속으로 우수후계농이 전국 최다로 선정된 것은 삼락농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 도축장·가공업소 특별점검

전북도는 ‘도축장 및 가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는 여름철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높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닭·오리 도내 도축장 및 가공업소 59곳으로 축산물 생산 가공, 보관 등 전 과정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식육 및 가공품의 보존 유통기준 준수 여부 ▲상하차시 고온 노출 방지 및 냉장·냉동 온도관리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은 밀폐된 작업 공간, 외국인 근로자 합숙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 여름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민관 합동 안전점검

전북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120개소, 관광숙박시설 486개소, 유원시설 20개소, 해수욕장 8개소 등 총 634개소이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소는 도에서 주관해 표본점검 하고, 614개소는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해 합동으로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분야는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내·외부 마감상태, 축대·옹벽 등 상태, ▲전기분야는 분전반 주위 인화물질 적재 여부, 접지상태, 규격전선 사용 여부, ▲가스분야는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차단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 ▲소방분야는 소화기 작동여부, 비상구 관리상태,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이다.

/유호상기자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며,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김양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시기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도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추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도내 소재 로컬푸드 직매장 39개소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합동으로 부적합 이력이 많은 업체류와 소비량이 많은 농산물을 위주로 수거, 잔류농약 20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상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